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통상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3.5.19.

CEPA Insight

- 인도네시아 해양플라스틱 발생 문제 및 주요 폐기물 사업현황
- 도내기업의 인도네시아 폐기물처리 환경사업 진출기회 적극 활용 필요

< 2023년 3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

구분	수출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수입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무역수지
전국	918,461천불	4.9%	1,100,463천불	-28.1%	-182,002천불
충남	62,949천불	-5.8%	88,091천불	19.4%	-25,142천불

※ 출처: 한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

■ 인도네시아 해양플라스틱 발생 문제 및 주요 폐기물 사업현황

- 인도네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시킴
 - 매년 약 115만~241만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의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음.
 -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200,000톤에 이르며,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8 유엔해양회의에서 “폐기물 제로화”를 기치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줄이겠다고 발표함
 - 한편, Sustainable Waste Indonesia(SWI)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7%에 불과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 지방 정부 및 민간기업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내 주요 폐기물 처리사업
 - 가장 최근인 2023년 3월 홍콩의 Alba Group은 끈달 리젠시(Kendal Regency)에 2.5 헥타르에 약 7,000억 루피아를 투자해 플라스틱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이 시설은 끈달리젠시지역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 플라스틱 펠릿형태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통해 외화수입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올해 4월에는 싱가포르의 기술회사인 MARS-ENVOTEC에서 인도네시아 식음료산업 협회(GPMMI)와 협력하여 도시폐기물, 플라스틱 및 유기물로부터 합성연료 및 기타 녹색에너지제품을 만들기 위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폐기물관리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밝힘
- 또한, 2022년 6월에는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대한이앤씨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 ADHI Karya와 인도네시아 최대 쓰레기 매립장인 반타르그방(Bantar Gebang)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설비공급'을 위한 2,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현재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음
- 이를 통해 반타르그방은 현재 하루 100톤에 불과했던 폐기물 처리 용량을 하루 1,000톤으로 늘리게 되었으며, 이 폐기물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400~450톤의 연료로 가공되어 다운스트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장회의 >



< 반타르그방 현장답사 >

■ 시사점

- **도내기업의 인도네시아 폐기물처리 환경사업 진출기회 적극 활용 필요**
- 인도네시아는 2023년 1분기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5.03%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원부국이자 세계 최대 인구 4위 국가로서 발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세계 2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짐
- 따라서 최근 내세우고 있는 공격적인 탄소중립 및 폐기물처리 목표 등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 도내기업이 현지 환경사업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